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 진 우 기(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



최근 들어 명상을 심리학, 뇌과학 등에 응용시켜 사례들을 발표한 저술서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서적들은 한국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기를 더욱 끌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 종교였던 불교가 21세기 서양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6월 2일 만해NGO센터에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MY Leaders Club에서는 현재 불교영어번역연구원 진우기 원장이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진우기 원장은 서구사회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진우기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람의 아들 붓다> <행복해지는 연습> <티벳의 상생> 등을 번역했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양문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불교영어번역연구원 원장, 불교 전문 통역사이자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



정리-이은정 기자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불교가 아니다

서양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처음 미국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고, 특히 지식층들이 불교를 알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불교를 전파하는 신문, 잡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돼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잘 읽힐 수 있는 책들이 많았고 이런 책들을 접하는 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그리스도교를 믿어 왔던 사람들이, 왜 20세기에 들어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고, 불교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오래 전 과거에는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후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질적 고통을 덜어 줄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물질이 어느 정도 풍요로워 지자,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내가 한 실법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말을 알아서 새겨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자신의 생활에서 응용이 가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서양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서양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가 각 개인의 거실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명상 수행을 통해 불교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는데, 명상 수행 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어울립니다. 숭산 스님이 처음 미국에 건너가 불교를 전파한 방식도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차 각 개인 거실에서 이뤄졌던 명상 수행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결국 불교센터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양이 불교를 만난 최초의 시점은 기원전 1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를 침략했던 그리스 장군 메난테르(Menantor: 155~130 BCE)는 인도 북서부의 알렉산더보다 400년 앞서 니가세나에게 불교를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에 남은 최초의 불교 개종자입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에서는 불교, 힌두

교, 노장사상 같은 동양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문인, 예술인들이 불교 사상과 문화를 전하기 시작했고, 불서가 서양에서 서양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전파됐습니다.

유럽열강들이 향료무역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진출하고 이들 땅을 식민지화 하면서 200~300년 후에 서서히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질적 이득을 위해 동남아에 온 포르투갈, 영국, 에스파냐,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식민지의 정신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에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까지 더해 불교관련 서적이 출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34년 헝가리에서는 '티베트학과 불교 문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르시 쏘마(Korosi Csoma)가 티베트 불교를 배우기 위해 세계 최초의 <티베트-영어 사전>과 <티베트어문법사전>을 펴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 능통했던 뷔르노프가 1844년 불교 원전들을 읽고 600쪽에 달하는 <불교역사입문서>를 저술했으며, 1852년에는 <범화경>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이 <범화경>책은 데이비드 소로우가 미국에서 영어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불교는 일찍부터 유명 학자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나의 철학을 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계의 종교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19세기 말 니체는 <반그리스도>라는 작품을 통해 "불교가 그리스도교보다 100배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27년에 <티베트 사자의 서>가 영역됐고, 1935년에는 옹의 평론을 담은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서양인들은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930년에 하이데거는 흑림에 다실을 열고 일본선사들을 초

청해 강연을 들곤 했습니다. 또 1951년 헤세는 소설 <신타르타>를 써서 불교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선불교의 경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서히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교 사상을 담은 최초의 번역서는 1977년 중국의 선화 선사(西來寺)가 처음 영역한 <육조단경>이었습니다. 이어 1977년에는 클리어의 <백암록>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불교 고전이 영역된 것은 찰스 물러가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최초로 영역한 것입니다. 이어 2006년 백운경환 선

사의 <지지심체요절>이 2005년에 영역되기도 했습니다.

선불교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1960년대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산이 일어난 데에는 일본인 스즈키 다이세츠와 미국인 앨런 와츠의 중심이 됐습니다. 다이세츠와 와츠는 미국 대중의 구미에 맞게 불교를 전파해 불교 확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낭만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을 강조해 전파했습니다. 이들에 이어 일본 선사인 스즈키 순류는 수행 중심의 선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선불교를 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그들의 삶에 적용 발전시키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그리스도교를 하루아침에 불교로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교를 배척하지도 않았습다. 오히려 불교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21세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를 재평가하는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불교로 개종을 시키는 것 보다 이러한 현상들이 불교 발전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실망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이며,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적당 신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 방법들이 없고,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들이 오류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들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Google'에서 'buddhism'이라고 검색을 하면 3340건의 항목이 나옵니다. 현재 서양 최대 규모의 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시라이(西來寺)입니다. 남반구 최대 규모의 사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윌롱고에 소재한 난티엔(南天寺)입니다. 두 곳 모두 대만 불광산종에 속한 사원입니다. 불광산종은 현재 전 세계에 120여 사찰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서구에 맞는 불교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불교센터를 설립한 제1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티베트 불교 카규파의 드롱파린포체는 1974년 콜로라도에 나로파대학을 설립하면서 이미 '아시아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다 배비리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만을 전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당시 미국 전역에 성행했고, 수많은 샬라 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북미대륙 최초의 승가대학인 감포수도원을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지역에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그들만의 특별한 수행 원한다
민주·자율·여성·대중적인 불교 성향

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티베트 불교를 3년 정도 안거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는가 하면, 티벳한 스님의 알아차림을 기반수행으로 하는 'United Buddhist Church'는 유럽 각지를 넘어 미국에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샬라 유럽은 매년 말 불교청년축제를 열었는데, 12월 27일~1월 1일까지 5박6일 간 16~35세를 대상으로 독일의 4성급 호텔에 모여 불교수행, 사회참여, 불교예술 등을 배우고 나누는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재가자들이 스님들보다 더욱 활발하게 불교 수행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샬라 센터의 경우 응용 불교가 가장 먼저 발달해 사람들의 큰 호응을 이끈 곳입니다. 재가자들이 골프, 운전과 같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불교와 접목시켜 어떻게 평생시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수행이 발달한 한국과는 달리, 서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모여 불교 수행을 함께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문화와 융합되기까지는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의 경우는 단 40년 만에 불교가 정착했습니다. 미국의 불교는 '미국 불교'라는 말이 따로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고유 방식으로 불교를 정착시켰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워진 분위기 속에서 가정과 직장인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수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안거의 경우도 6개월 생활과 번갈아 하거나, 가족들끼리 휴가를 안거생활로 대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편리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를 응용해 자율적으로 수행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여성화, 생활화 됐다는 점이 미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빠르게 불교가 활성화되고, 불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불

교의 자비와, 관용, 합리성 등의 사상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며, 서양에서 자란 차세대 스님들이 많아지면서 자국어로 소통하고 현대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불교의 경우는 재가불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의 거실에서 시작된 명상 불교로 인해 재가자들의 파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불교수행자들은 반승반속(半僧半俗)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은 수행이 없으면 '불교는 아

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불교를 적용하지 않으면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이나 수행센터 안에서 가족단위로 몇 년씩 사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즈키 순류 선사는 "미국에서는 선불교도를 일본과 같이 정의할 수 없다. 미국 학생들은 승려가 아니지만 완전한 재가자도 아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로서 승려의 수행도 아니고 재가자의 수행도 아닌 특별한 수행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이들은 다르마에 합당한 사람의 방식을 발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병원에서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와 기업에서는 다르마의 원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명상과 정관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명상 학습과 실수행 과목을 만들어 학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미국학문협회(American of Societies, ACLS)가 시작한 명상수행 펠로우십(Contemplative Practice Fellowship)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에 명상수행의 응용을 진흥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수대학인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예일대, 매사추세츠대, 미시간대를 포함한 75개 대학에서 명상수행을 영입했고, 의학, 경영학, 심리학, 종교학, 건축학, 문학, 음악 분야 등에서 명상수행을 통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교는 생태보호 환경 운동에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명상수행의 효과는 뇌과학 의학과 접목돼 과학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점은 여성불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입니다. 서구에서 여성운동이 대두되던 시기에 불교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여성들은 단지 신도나 수행자의 역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시거(Richard Seager)는 "1960년대 이후 미국불교여성들은 수행자, 스승, 지식인, 지도자로서 주류 세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계에서는 불교는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한 영화인, 미술인, 음악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불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철학과 가치관들이 서양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없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교활업,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속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뜸의 고온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질환,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정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영명 *일일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역간담매, 오진순씨, 오주배씨등 지역별대량)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동적 인기리에 판매되어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땀 배 곯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반응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평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암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였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일일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명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